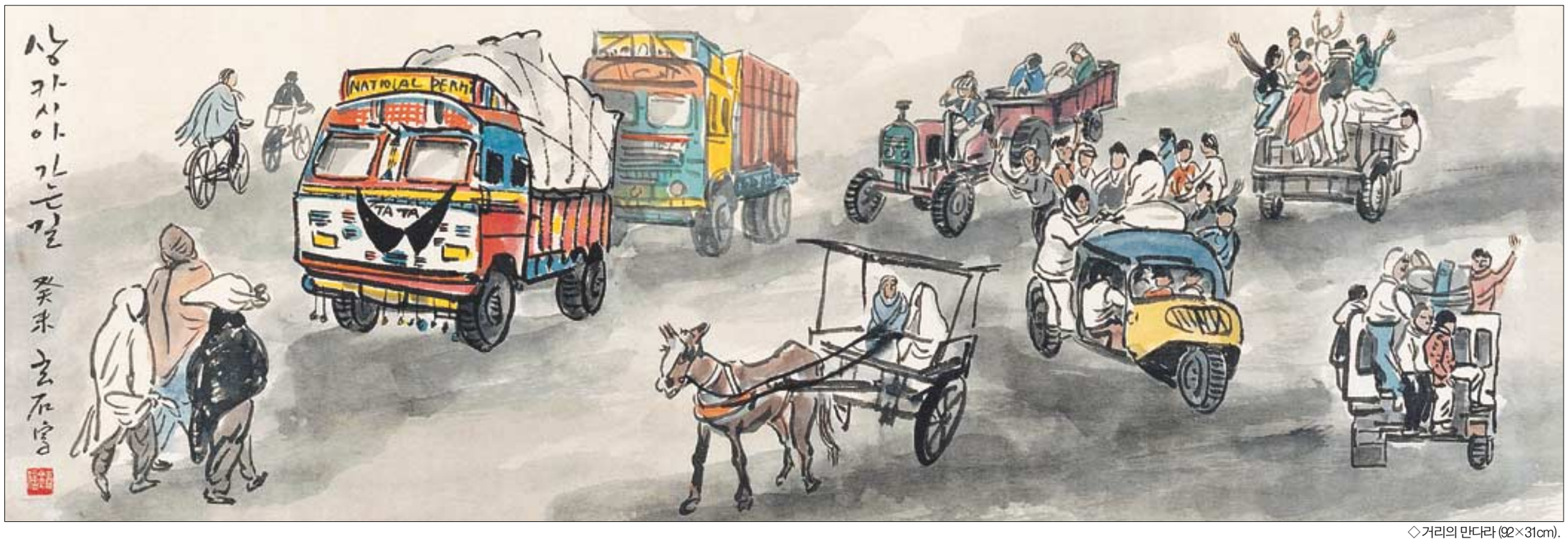


◇거리의 만다라 (92×31cm).

인도그림기행 15

무질서 속 순수, 한 폭의 '만다라'

그림·글 이호신

개성이 꽃피는 거리와 얼굴

(상카시아 가는 길의 풍광)

힘겨운 우마차, 낡은 사리 차림의 아낙네들
짐과 포개어 수십명식 태우고 달리는 버스
가난과 무질서 속에서 삶의 내음 물씬

"여행을 통해서 의타심을 버린다. 따라서 아끼는 자식일 수록 여행을 보내라. 인생은 실로 정해진 비자와 같고 그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다. 간디가 홀로 간 이유는 민족의 독립뿐 아니라 자신의 독립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옆자리의 송암(松菴) 스님께서 새삼 여행자가 가져야 할 안팎의 의미를 되짚어 주시니 오늘도 '흐르는 길'과 '열린 문'을 향해 차는 질주한다.

상카시아(Sankasya) 가는 길.

부처님께서 천상의 어머니를 위해 도리천에 오르셨다는 그 효도의 길을 우리는 안숙선 명창이 판소리로 풀어낸 <부모은중경>을 들으며 간다. 노랫말은 생전의 금하당(金河堂) 광덕대선사(光德大禪師)께서 친히 지으셨는데 그 스님의 상좌가 바로 송암 스님이시다. 스님은 한결같이 은사스님을 부모님처럼 받들어 모시는 바, 그 지극한 효의 숨결이 테잎에 실려 누리에 번져간다.

나 역시 병든 노모를 남겨두고 떠나온지라 오늘의 판소리는 '사모곡(思母曲)'이 된다. 사람은 헤어져 보아야 그리움이 한껏 싹트는 것을….

어둠과 안개속에 오직 귀를 열었던 시간을 빠져나와 비끼는 햇살에 커튼을 젖히니 가로수 사이로 천태만상의 풍경이 펼쳐진다.

겹겹이 페타이어를 쌓아놓고 짚으로 이은 간이 주막같은 노점상. 우기와 습기 때문인지 거의 지면에 다리를 세운 뒤 널빤지로 깔고 바닥을 삼았다. 침침하고도 빈궁한 노점에서 빼꼼이 얼굴을 내밀고 눈만 깜박이는 사람들과 힘겨운 우마차의 행렬. 낡은 사리 차림으로 짐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든 아낙네들의 발걸음과 자전거의 행렬. 쓰러져 가는 담벼락에 쇠똥을 덕지덕지 붙여 놓았는가 하면 무성한 숲에서 흰옷을 입은 사내들은 마치 숲에 깃든 두루미 같다.

낡은 6인승 삼륜차에 수 십명이 매달려 가고 버스 위로 짐과 사람이 포개어 달리는 진기한 풍경을 보기 위해 버스 조수석을 차지한 나그네의 눈길은 쉴 틈이 없다. 그들은 손짓하는 내게 손을 흔들어 답례하며 모두들 웃음을 머금고 있지만, 낡은 차의 소음과 매연이 뿜어내는 가난한 현실은 환경 문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짐을 실은 트럭들은 온통 현란한 도색으로 꾸몄는데 운행자 마음대로 착안한 구성과 글씨, 문양이 빈틈없이 장식된 채로 달려가고 또 달려온다.

일터로 가는 트랙터에도 사람들의 머리가 오종종 한데 흥미로운 것은 모두 헤어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사리 빛깔이 다르듯 인도 남자들이 터번을 쓴 형상이 가지각색이다.

길목에는 신호등 설치가 드물어 각종 차량이 알아서 비껴가고 양보해 가는데 의외로 교통사고가 드물다고 한다. 이처럼 가난이 도리어 강한 개성을 도출하고 기상천외한 발상과 이미지를 보여줌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한국의 시, 군 단위는 모두 서울을 모델로 하여 지역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 온갖 기업형 건축물과 유명 브랜드 간판이 파고드는 현실을 떠올려 보게 된다. 이것이 진정 선진사회로 가는 새 질서요, 인도의 현실이 무질서한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삶의 내음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만 살펴본다면 인도는 풍토성이 낳은 자족과 수행, 그리고 낭만적인 생활의 다양성이 저변에 깔려있다. 거지천국이면서도 인공위성과 핵을 보유한 나라. 수없는 종교와 성인을 배출한 나라. 필연보다는 우연을 즐기고 인위적인 계획보다는 순리를 따르는 사람들. 기록보다는 느낌으로 살고 싶어하고 집착하지 않는 생활태도가 예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곤 한다.



◇인도의 얼굴(63×91cm).

이를테면 음악의 경우, "인도 음악가는 과거나 현재에도 일종의 즉흥 연주가이다. 단순한 멜로디는 서양의 악보로 기록할 수는 있지만, 인도는 완성된 기보법의 체계를 고안한 적이 없으며, 옛 스승들의 음악은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모든 연주는 실제로 새로운 작품이다."(이지수 <인도에 대하여>p105)는 말에서 보듯 외부의 잣대로 인도 문화를 말할 수는 없다.

10억 인구의 인도, 그 지리는 총160만 평방Km 면적으로 한반도의 약14배이며 사막의 건조함, 세계 최다의 강우량, 히말리야의 만년설과 찌는 듯한 열대야, 그리고 세계 최고의 산들과 끝없는 대평원을 가진 나라로 지역의 특성과 문화가 독특하다.

서로 다른 신앙과 생활의 개성 때문에 때론 마찰을 빚고 사회계급인 카스트(Caste)로 인해 비난을 받기도 한다. 특히 불가촉민으로 부르는 아웃카스트 제도는 지금도 심각하다.

즉 계급의 의무나 법을 어긴 이유 때문에 계급 바깥으로 축출된 계층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 간디는 이들의 구제를 위해 생전에 '하리잔'(신의 자녀)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힘썼던 것이다.

창밖을 보니 어린아이가 찌그러진 굴렁쇠를 굴리며 가난한 마을 길을 걸어가고 있다. 사내들은 저마다의 복장으로 몸을 두르고 도로엔 여전히 짐짝 같은 사람들이 차에 실려 허연 이를 내보이고 손사래 치며 달려간다.

진정 시대의 예술이 그 삶의 반영이라면 따로 직업화가가 없이도 인도 사람들은 오늘 모두 예술가다. 이 슬비에 옷 젖듯 배어서 나오는 삶의 목소리와 빛깔. 그 무늬결이 모두 소중하다. 세상에 둘도 없는 개성이요, 그 개성이 꽃피운 얼굴들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는가. 인류의 한 형제들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벗님들과의 지극한 인연의 길을 달려나간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금강염주사문의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구조상 특성과 화학적 조성과 강한 흡착 및 살균작용으로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10분 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이외도 고급 난초 및 나무등도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 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깊게 숙면을 하며 꿈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몸이 찌뿌둥하고 목이 뻐근하며 어깨가 뭉쳐있는 것도 없어지고 몸이 개운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또한 천식등 기침을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며 건강하고 장수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뇌에 관한 병은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지며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세요.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 처럼 사용하시고 7일만 사용하면 입냄새는 없어지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되어요.

1set면 1년정도 사용하며 온 가족의 치아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생약초 치약입니다. 본 제품은 사용해 보신 분들에 의해 그 진가가 더욱 증명되고 있습니다.

※ 1set가격은 60,000원입니다.

문의전화는 (02)722-2890 입니다.
♠농협: 360-12-046446 최 능우